

지역 매력 담은 '블루콘텐츠' 전남 관광 매력 높인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자체 협력 콘텐츠, 관광객 재방문 유도 순천만 등 가상현실·전시콘텐츠 젊은층 관심...내년 콘텐츠페어 개최

전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연 자원, 미래 잠재력을 주제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도내 시·군이 협력해 수년 간 함께 내놓고 있는 전남만의 '블루콘텐츠'들이 해당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줘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본부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관련 18개 사업(예산 170억원)을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사업이 시·군과 협력해 해당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것이다.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융합콘텐츠, 전시관·박물관 체험 콘텐츠 개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올해 '찬란한 빛, 해양공룡을 깨우다', '고흥 G-갤러리 유자를 모티브한 빛의 조형 콘텐츠', '영암의 이야기를 담은 읍너스틱 콘텐츠 및 인스타툰 개발' 등 해남·고흥·영암이 가진 고유 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했다. 예술, 역사, 전통 등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자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하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사업'도 진흥원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우선 낙후되어가고 있는 시·군의 박물관·전시관들이 새롭게 단장되고 있다. 지난

해 목포문화관 내 구축된 디지털 문학 전시시설, 스마트 문학체험존은 '2023년 목포문학박람회'의 주요 장소로 활용되면서 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기도 했다.

이어 보성군 보성 차밭을 배경으로 보성의 사계를 나타내는 미디어아트와 보성 전통 그릇인 단청 무늬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생명의 땅, 순천만에 살다, 놀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아동용 애니메이션 등 7개 종류의 실감 콘텐츠를 선보여 높은 인기를 누렸다.

올해는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다산박물관, 담양의 한국대나무박물관·죽원아트센터를 대상으로, '강진 고려청자의 문양과 색', '정약용의 강진에서의 발자취', '대나무 생태와 역사' 등을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를 전시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진도·순천·나주·신안·보성 등의 소재로 캐릭터, 상품, 게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올해는 구례 화엄사 스마트 사찰 투어, 여수 항일암 스토리 중심 문화 자원 관광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들 사업으로 인해 지역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성과물의 질이 꾸준히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9월 기준 진흥원과 19개 시·군이 협력해 모두 44개 콘텐



올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다산박물관에 '강진 고려청자의 문양과 색', '정약용의 강진에서의 발자취'를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를 전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의 전시 콘텐츠.

츠를, 진흥원 자체적으로는 12개 시·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내년에도 도내 역점 시책과 연계해 문화자원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결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 관람객 체험형 실감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한 '전시관·박물관 체험콘텐츠 개발 지원', 지자체 관광테마와 지역 자원·ICT 접

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등과 함께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고유 자원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지역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전시 등을 통한 판로 개척 및 새로운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남 콘텐츠페어'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지자체와 연계한 블루콘텐츠 육성으로 전남 콘텐츠 산업 발전, 문화관광 콘텐츠 인프라 확산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콘텐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전남이 관광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방채 발행·긴축 재정으로 재정난 극복"

강기정 시장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청년일자리 등 민생 최우선

광주시가 역대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해 고도의 예산 절감 정책과 함께 최고 한도액 수준의 지방채 발행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지만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908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 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편성이다.

광주시는 최악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 발행과 긴축 재정으로 민생 경제를 챙기고 미래산업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또 무등·평동·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

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재산제로 변경하고, 도로 공사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광주에 기반을 둔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예산을 추가로 4억원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린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도 12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차 산업에 주력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등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 164억원을 투입한다.

영산강 수질과 주민 휴양을 강화하는 Y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9개 사업 67억원을 편성하고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637억원을 반영했다.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사이·월전동과 무진로 사이·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 등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오는 2026년 개통할 예정이며 2단계는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강 시장은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극복해 낼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 준비 돌입

전남교육청 내년 5월 여수서 개막...지역 소멸 위기 대안 제시

"미래를 여는 글로벌교육, 전남에서 시작됩니다." 전남교육청이 내년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8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세계 미래 교육의 모델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할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박람회는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정했다.

박람회 조직은 교육감과 사회부총리,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꾸릴 계획이다.

행사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 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20개국, 15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20여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교육박람회는 개·폐막식 등 공식 행사를 비롯해 글로벌 미래 교육 콘퍼런스, 글로벌 미래 교육 전시, 글로벌 미래 교실, 글로벌 문화예술 교류, 글로벌 미래 교육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적 교육 리더들의 기초 강연과 각국의 미래 교육 사례 소개, 교수 학습법 소개, 세미나 등이 펼쳐진다.

미래 교육 전시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교육관과 기업관, 국제교육관을 선보인다.

전남의 작은 학교가 참여하는 미래 교실 운영관은 실제 수업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초·중·고 1학년씩 3학년이 3일간 미래 교육의 모습을 선보인다.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한 공동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른 지역과 연결된 프로젝트 수업, 인공지능(AI) 활용 독서토론 수업, 로봇 활용 수업 등이 펼쳐진다.

K팝 공연, 청소년 예술동아리 공연, 전국 이종언 아카데미, 진로 토크 콘서트 등 문화행사도 열린다.

김여선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지역을 지켜내고 공생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의 비전과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